

만남

08

2019
통권 547호

특별기획 | 세대 간의 대화

영락 지금



교회 마당에서 시원한 물놀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여름은 우리 자녀들에게 휴식과 영적 성장의 계절이다. 7월초 대학부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중순 청년부 하기선교봉사까지 교육부서의 여름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7/20~7/21)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봉사관 앞마당에 설치된 수영풀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제공 유치부

표지설명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깊다.
푸른 동해 바다의
시원함을 표지에 담았다.
사진 이상현 기자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ONTENTS

이달의 말씀

진정한 승리의 방편은 교육입니다 | 김운성 02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3040 세대와 소그룹 사역 | 김충섭 04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 최미애 06

특별기획 세대 간의 대화

해방동이와 Z세대가 만나다 08

다음세대

성경적 자녀사랑 | 이기복 17

선한 능력으로 서는 세대 | 박선생 20

호산나찬양대 일본순회연주 | 박태상·김유진 22

땅끝까지 이르러

새 성전에서 꾸는 꿈 | 박희수 26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 최익준 29

주님이 주신 사랑 | 김재연 32

야곱의 우물가

생각을 바꾸니 얼굴이 변한다 | 이연자 34

온전하게하시는 주님 | 최옥분 36

영락의 울타리

성실한 믿음과 부지런한 섬김 | 이재향 38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 정선화 40

위대한 복음전도자를 기억하며 | 이재규 43

침과 쉼 그리고 영성 | 함윤호 46

어머니의 기도 | 심경화 48

문화광장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 | 심재수 49

도마, 예수를 보게 된 사람 | 박정관 52

교회소식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외 53

새가족 환영 / 세례·입교 명단 56

편집장 레터 5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8월 목회력 60

2019년 8월호 통권 547호

발 행 2019. 8.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김운성 위임목사

진정한 승리의 방편은 교육입니다

주후 66년 가이사랴에서 열린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소송에서 그리스인이 승소한 이후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압제까지 무거워지자 유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베스파시안 장군으로 하여금 유대를 정벌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 8만여 명과 맞서 결사 항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사다 항쟁도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결사 항전을 외치는 사람이 애국 애족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때, 유명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런 방식으로 로마군에 맞서는 일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강경책이 유대인들의 파멸을 가져올까 우려했습니다. 그는 유대민족과 신앙의 보존을 위해 항복을 권했지만, 동료들에게 거부당하고 비난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봉쇄된 상황에서 로마군 사령관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는데, 흑사병에 걸린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고,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은 그를 성 밖에 나

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나 장군이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이루어지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소원이란 유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를 세우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예언에 베스파시안은 약속했고, 정말 예언은 이루어져 네로의 죽음으로 얼마간의 혼란이 지난 후 베스파시안은 주후 69년에 로마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후임 사령관이 된 아들 티투스에게 랍비의 소원을 이루어 주라고 명했고, 이로 인해 유대 학교 예시바가 세워졌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텔아비브 남동쪽으로 50여리 떨어진 곳에 학교를 세워 소수의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양성된 인재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파송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유대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되어 그 후 다시 이스라엘이란 이

름의 나라가 재건되기까지 1,900여 년 동안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교육이 칼을 이긴 것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의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그래도 우방이라 여겼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처신에 매우 큰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토양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종교 편향을 막는다는 구실로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성경 교육과 예배를 막는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외출·외박을 허락하면서부터 예배 참석인원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을 따라 나갑니다. 교인 가정의 자녀들도 과중한 학업의 부담 아래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요하난 벤 자카이가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는 설령 다른 분야에서는 뒤지더라도 교육에서만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락 교회는 가정에서의 다음세대, 교회학교에서의 다음세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과거처럼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넘쳐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대적 상황도 쉽사리 호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향수를 버려야 합니다. 과

거처럼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넘쳐나길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시바에서 소수의 정예 랍비들을 양성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정예의 복음 투사로 키워야 합니다. 과거보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영적 정예로 키워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여름은 휴가의 계절입니다. 마음을 풀어놓는 여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름이야말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년들을 위한 두 차례의 산상기도회도 열립니다. 청년들의 하기 선교봉사와 해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름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아울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값진 땀을 흘릴 계절입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교회는 교회학교에서, 교육이란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 시대의 악한 풍조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휩쓸어 갈 것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인재를 가르쳐 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승자였던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이스라엘은 재건되어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교육은 짧은 승리가 아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만남**

3040 세대와 소그룹 사역



김충섭 목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안양·수원교구



교회 안에서 3040 세대의 위치

영락교회 안에서 ‘3040 세대’는 어느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3040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3040 세대를 말할 때는 대부분 갓 결혼한 젊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50주년기념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기념관 내 각급 교회학교 예배실에 자녀를 들여보내고, 베다니홀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3040 세대는 그들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던 청소년기와 열정으로 교회를 뛰어다녔던 청년기를 보낸 믿음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나 취업과 결혼 그리고 육아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주일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고사하고 아이들과 교회학교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일 하루 내내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청년시절 경험했던 뜨거웠던 찬양과 말씀 사경회에 몰두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별써 5년, 1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신앙생활의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생겨나지만 때로는 오랜 만에 참석하는 본당 예배의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다니홀에서만 머물고 뜨거운 찬양과 말씀 앞에서 어색해지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상황이 3040 세대 전체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젊은 가정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3040 세대는 교회 공동체의 희망

3040 세대는 비슷한 연령대라는 동질그룹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교감되고 공유되는 주제들이 풍부합니다. 부부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 말씀과 나눔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필자는 이전 사역한 교회에서 청·장년부(30·40·50세대)를 오랫동안 맡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그룹 활동과 나눔을 통해 청·장년부의 폭발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육아와 삶의 여러 문제로 지쳐있는 영락의 3040 세대도 소그룹 활동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써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3040 세대의 모임들이 지속되고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적지 않은 수의 3040 세대 모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치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되는 소그룹 활동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3040 세대가 밑바탕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영력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장년층의 믿음을 이어감과 동시에 지금 자라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때,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되며, 청년 시절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자양육훈련부의 소그룹 사역

저는 이 글을 통해 우리 교회 제자양육훈련부에서 준비하는 소그룹 사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소그룹이 필수적입니다. 그 가운데 4대 요소(예배, 양육, 교

제, 선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상호간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4대 요소를 바탕으로 소그룹의 리더는 소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재 개발과 리더 교육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교재(원페이지)를 매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4대 요소를 중심으로 김운성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기본으로 하며 특정 주제와 시리즈 형태로 제작됩니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해 나눌 수 있는 교재를 9월부터 배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 교육입니다. 소그룹 교재 못지않게 리더 교육은 소그룹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리더의 섬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낼습니다. 리더는 소그룹을 성장시키며, 미래의 큰 청사진을 그리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작은 신앙의 나침반을 품고 그 방향을 설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리더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제자양육훈련부의 소그룹 전담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력교회에 소속된 3040 세대 구성원들의 소그룹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희망적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삶의 나눔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3040 세대 구성원들 간의 만남을 통해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소그룹 사역이 영력교회 젊은 세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밀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 제자양육 전도수업을 마치고



최미애 성도
관악·동작·금천교구
2단계 양육 핵심과정 4반

2단계 양육 핵심과정 전도수업 중 마지막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3조 (임재광, 김미영, 이종원, 임성근)는 청계천이나 파고다공원으로 전도를 가려는 계획이었는데 당일 아침에 그곳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명동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집사님 두 분과 저는 노방 전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갔고 전 도폭발훈련 과정을 마친 권사님은 미리 전도물품을 챙겨오셨습니다

우리 3조는 2단계 양육 핵심과정 반에서 미리 준비한 한글 전도책자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쓰여 있는 작은 전도책자와 사탕, 바카스 젤리, 교회 홍보문구가 인쇄된 일회용 행주 팩을 챙겨서 조별로 각기 삼삼오오 그룹을 지어 나갔습니다.

권사님은 명동극장 앞 계단에 앉아 쉬고 있는 박

스 줍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며 준비한 전도책자를 가지고 전도하셨고, 우리는 각자 흩어져 전도를 하고 30분 후에 다시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 명동거리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대다수였습니다. “지저스 러브스 유”하며 외국인 전도책자와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의아했는데, 아마도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일본의 문화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받는 사람들은 사탕과 선물 때문에 받아 주는 것 같은데, 사탕이 아니었으면 전도책자도 못 줄 뻔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걸 읽어나 볼까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이 전도책자를 꼭 읽어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명동 거리엔 외국인들밖에 없었는데 준비해 간 외국인 전도책자가 너무 적어서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인을 찾았습니다. 명동 빌딩거리 화단 앞에 런닝만 입고 앉아 있는 중년의 남성 분이 있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간 지 서너 달은 된 듯한 행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하며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 예. 교회에 갔다 왔어요” “아, 그럼, 김운성 목사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하며 사탕과 같이 드렸더니 “아, 네”하며 받으셨고 돌아올 때 보니 사탕을 드시며 전도책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단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 있는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음식점의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알 수 없는 분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손을 내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얼른 그분에게 준비한 행주 선물을 내밀며 “일곱 번 뺏아 쓰는 행주에요” 했더니 “아, 그래요?”라며 행주 선물을 받으셔서 전단책자와 바카스 젤리도 함께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극장 앞에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앞서 인사를 건넸던 그 노인 분과 이야기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전도는 잘되셨어요?” “응, 이분은 준비된 분이셨어.” “네? 준비요?” “응. 이분, 영접기도 드릴 때부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에 ‘너희’와 ‘믿는 자’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게 했더니 눈물을 계속 흠치시더라고…”라며 권사님께서 감격해하셨습니다. 듣는 저도 둉달아 눈물이 왈

칵…, “그리고 그분, 힘들지만 예배에도 참석해 보겠다고, 시간도 내보도록 하겠다고 하셨어. 그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분인 것 같아. 복음을 받을 사람도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하셨습니다. “그분이 혼자 살고 계셔서인지 ‘김○○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되시고 가족이 되어주세요’라는 말씀에 위안이 되셨나 봐. 일하는 곳을 아니까 가끔 찾아뵈어야겠어”하며 전도 후의 일도 생각하셨습니다.

이번 전도현장 실습을 통해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외국인 전도에 대해 미리 준비를 못하고 나간 것이 좀 아쉬웠고, 한국인에 대한 전도도 복음 제시를 해 볼 기회도 없이 거절만 당한 것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 열심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받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정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작은 두려움을 없애는 데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참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남**

해방동이와 Z세대가 만나다 -영락의 '세대 간 소통'



예수님은 최고의 소통전문가이셨습니다. 고기잡는 어부나 로마군대 백부장, 어린 아이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동일세대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한다고 호소합니다. 「만남」은 교회 공동체의 일과 삶, 역사인식과 믿음의 소통을 위한 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해방동이 이운종 은퇴안수집사(74)와 장년세대 백성우 목사(49), 'Z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가치관을 들려줄 대학부 정슬기·정세훈(24)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사회 및 진행 이동훈 편집장 정리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이현지 기자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동훈 편집장, 이현지 기자, 정슬기 성도, 백성우 목사, 이운종 은퇴안수집사, 정세훈 성도. 8.15 광복 74주년을 손으로 표시했다.

사진 박홍기 기자

사회자: 가족 간에도 그렇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마다 어려움과 즐거움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염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운종: 저는 8·15 해방부터, 6·25전쟁, 이후에 찾아온 가난과 사회적 혼돈까지 격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선 근본적인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의 생각을 인도하지 못했던 교육적인 책임도 있고, 많이 부족한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은 젊은 세대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을 살아갈 때의 어려움은 사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6·25를 지나던 시절에는 굶어죽지 않을 정도가 음식의 정량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선 최선을 다하다가 거기 근무하면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슬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안정된 사회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위해 계속해서 경쟁해왔습니다. 부모님 또한 쉽지 않은 세대를 겪으셨기에 더더욱 자식은 고생을 덜 하기를 바라시고, 자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저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역시도 자녀들이 편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백성우: 70년대 생인 우리 세대는 블루오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하나 개척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세대는 레드오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척할 땅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 했는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눈을 낚추어 직장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슬기 자매 이야기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교육을 받지는 않았겠지요.

현 사회는 기성세대 때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 또한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좌담회와 같은 대화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맞습니다. 역사적 요인도 녹아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말씀하신 이운종 집사님과 또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삶을 말씀하신 목사님, 여기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요.

“기성세대가 신세대 문화를 접하면 새로운 소통의 주제가 생길 것입니다.”

정세훈: 문화적, 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한 채 “너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며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강요만 한다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대화방식은 일대일, 면대면의 일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기성세대라든지 저희 부모님들도 거기에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SNS를 통해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요즘 세대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새로운 소통의 주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세훈 성도

이운종: 우리 세대는 극한의 어려움을 겪어 이루 어낸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한편, 굉장히 행복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는 지금 내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노력하며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은 쉬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장 원하는 단계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안 되어서 일단 들어가서 다른 대학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사위는 자신의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전공분야로 직장을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 임시직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어엿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위는 “그때 아버지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특별히 남다른 선견지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조언했고, 판단을 반영해 성공했습니다.

정세훈: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대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반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

리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는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대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과 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겼던 일을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 늘어 … 포기가 아니라 고려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우: 신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많이 쓰인 말 중에 ‘포기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게 정말 많아졌지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봅니다. 20, 30년 전에는 포기하는 것이 자괴감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포기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한 예로, 결혼과 같은 당연시 되었던 문화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 더 이상 포기란 단어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처음부터 고려사항이 아니야’라고,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포기가 아닌,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라

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정말 가치관의 변화입니까, 포기입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슬기: 제 주변 20대를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나는 혼자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더 심화되고 있는 이성 간의 대립 현상과 결합되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백성우: 세대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어디서부터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봅시다.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가면 직장의 변동 폭은 훨씬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곧 나’라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해주던 시



“평생직장이 사라진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직장을 쉴 수도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가 아닌 것이지요. 직장이 한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변했습니다. 직장을 쉴 수도 있는 융통성과 유연성의 시대를 이미 젊은 세대들은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른들이 이해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 세대인 청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세훈: 지금 신세대들은 내가 편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질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탈물질주의 가치관 세대인 청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기성세대와의 대화, 가정 안에서의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자신과 생각이 맞는 또래나 외부 집단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가정 안에서의 대화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젊은 세대는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경쟁하는 문화에 놓여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해서, 누구는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가 눈에 훨씬 잘 보이게 되고 위축이 되니까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지금 눈높이에 있는 단계보다 낮춰 생각하지 않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성우: 지금까지 나온 말을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식

은 어디까지 수용해줄 것인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바꿀 수 없는 방식은 무엇이겠는가. 이토록 바뀌는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른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대에서 열린 한 대담회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경험이 지혜였으나 지금은 경험이 오류인 시대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예전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오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른들에게도 적응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적응능력은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머물러 서서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은 놓칠 수 있습니다. 세훈 형제가 이야기 해주었듯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경험이 지혜였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경험이 오류인 시대…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운종: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무언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 생각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여자와 남자가 만나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단순히 원 플러스

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강인한 힘과 사고가 결혼을 통해 생겨납니다.

저는 숟가락 두 개, 밥그릇 두 개로 시작했습니다. 없던 것 하나, 예를 들어 밥상 하나 장만하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해쳐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숨겨주신 힘이었습니다. 결혼을 빼고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를 빼고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힘, 절대 인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세대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주장합니다. 결혼과 출산도 내 선택이라야지, 강요받는다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정슬기: 제 생각에는 선택과 강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세대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주장하고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혼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보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로 인해 나의 경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가



정슬기 성도

라는 의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또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건강과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강요하는 것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세훈: 저희 세대들 사이에서도 1, 2년 사이에 또 다른 세대가 나오면서, 세대 간의 이야기들이 또 다릅니다. 결혼하더라도 애는 낳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낳은 가정과 혼자 사는 율로(YOLO)족의 삶을 SNS 등의 매체를 통해 확인했을 때 가족을 만들어 사는 생활보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사는 삶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이성 간의 교제가 가능해졌고 그런 삶을 즐기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그때그때 마음 맞는 사람과 살자는 가치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애를 낳지 않아서 후회하는 문제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기에 미래에 맡기는 관점도 보입니다.

백성우: 결혼은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는 이운종 집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원 플러스 원을 넘어서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또 진짜 나를 찾는 길이라는 말은 정말 멋진 말입니다. 나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훈 형제와 슬기 자매 세대가 20대를 지나 30대가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욱 이야기가 다양해질 것입니다. 최소한 10명 중에 6명 이상은 결혼을 할 것이라 기대치를 잡아봅니다. 다만, 10명 중 9명이 결혼했던 세대와는 차이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

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사고, 생활,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가정을 이루지 않은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혼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훈: 결혼은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마라톤과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문제이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보았을 뿐입니다. 공동체 자리가 마련이 되었을 때, 혹은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집사님과 목사님이 오늘 해주셨듯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권유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강요로 느껴지고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보다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다면 결혼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조금 방향을 바꿔볼까요. 요즘 우리 사회의 역사관이 종종 논쟁이 되는데, 1945년의 해방, 8·15가 갖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운종: 광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일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양반-서민 계급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국가의 부흥을 일으킨 인재들이 등장했습-

“광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부지런해야 살 수 있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니다. 건국과 토지개혁을 잘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경제발전을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 넘치는 복 가운데에 살아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목표는 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회자: 젊은 세대의 목표를 부(富)로서만 해석하는 것은 좀 이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측면에서 부의 개념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백성우: 지금 시대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면 나라가 귀한 리더십으로 젊은 시간에 발전한 것은 국민의 응집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어느 곳에 소속되어 하나의 무언가를 이루는 소속감보다는 세훈 형제와 슬기 자매가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에 가치관이 서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관이 옳다 혹은 그르다하고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그 시작점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들어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희망을 가지기 더 힘들겁니다.”

정세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금수저, 인맥 같은 것을 쉽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희망을 가지기 더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서울에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 부모님도 이미 노년이시기에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기치관의 충돌이 발생하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백성우: 지금 세대의 소속감은 앞선 세대와는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참여가 소속감이었습니다. 한 단체에 참여하면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 공동체를 위해 힘씁니다. 지금 세대에게 참여는 네트워킹입니다.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면 참여했다가 관심이 약해지면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단체에 속해 자신을 희생할 만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세대는 소속감보다 네트워킹 통한 참여 원하지만 소속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 역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되지 않음에 대한 분노 또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소속감과 개인주의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힘들되지 않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교회 청년들과 단기선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단계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국가의 흐름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세대를 넘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슬기: 저는 남북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국가의 흐름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노력하는 것이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가져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정세훈: 8·15 광복을 포함해서 많은 역사의 흐름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등 의 독립운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도가 있었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신앙심 안에서, 국가에 대한 마음 안에서 소통과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학생, 직장인 등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살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르신들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반기고 품어줍니다. 함께 간다는 복음의 본질 속에 소통합시다.”

백성우: 영국에서 사역했던 시절,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뜨겁게 참여하는 것도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르신들, 핵심 리더들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반겨주고 품어줍니다. 영국 교회가 바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분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스스로 여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겸손함으로부터 오는 소통을 저는 굉장히 뜻깊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함께 간다는 복음의 본질 속에서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함께 걸어간다면 영락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간 좌담에서 차이도 발견하고 공통점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천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세대 간에 함께 더불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선배님, 목사님 그리고 두 젊은 대학생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남**

성경적 자녀사랑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이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며, 청소년 시기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벧전 5:8-9)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사탄은 매우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돈, 권력, 음란과 같은 죄뿐만 아니

라 영화, 드라마, 인터넷과 같은 문화와 매체, 그리고 학교 교육,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모든 곳이 영적 싸움이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성공일 것이다. 모두 성공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발버둥치고 있다. 부모의 바람도 자녀의 성공일 것이다.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싶은 것 사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이기복 목사
온누리교회 협력목사

청소년은 아직 미완성의 시기

청소년은 혼란, 불안, 소외감, 실패, 자신 없음, 열등감, 두려움, 왕따,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자주 느끼고 충동적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청소년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미완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꾸짖고,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괜찮

아”, “엄마 아빠도 어릴 적에 그랬어”, “힘 내!”, “할 수 있어!” 등의 말로 격려해야 한다.

청소년은 자아 정체성 확립의 시기(identity formation)

청소년기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늘에 있다가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의 자기 정체성을 성립하는 시기이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 전공 등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기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무런 근거와 정보가 없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청소년은 가치관, 생각, 이데올로기 정립의 시기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에 빠지기 전에 미리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자녀를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청소년은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주관이 있고 세상의 흐름에 그저 따라만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어하는 를 모델이 필요하다. 좋은 를 모델은 자녀들을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청소년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

아들에게는 “든든하다” “멋있다” “듬직하다” “남자답다” 딸에게는 “예쁘다” “여성스럽다” 등의 말을 해주어야 올



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청소년은 또래, 선배, 좋아하는 사람, 그룹의 영향(role model), 잘못된 이념에 빠질 수 있는 나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하기 원한다. 학부모가 칭찬과 인정의 언어를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건전하지 못한 공동체에 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설교와 충고와 잔소리를 멈춰야 한다. 자녀에게는 칭찬과 인정이 절대 필요하다. “잘 했어”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근데”를 붙여서는 안 된다. 부모들은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요즘 시대에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그렇구나” “그치 그치” “와, 힘들겠다” “피곤하지?” “맞아 맞아” 등등의 말로 공감을 해줄 수 있다.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나누며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만한다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사람들(부모, 선생님,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 나는 더 잘하고, 성공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 지금까지도 이 모양이었으니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
-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 하나님 기준에 나는 자격미달이고 성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위와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녀들은 의욕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과 같은 증상에 빠지게 된다. 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등의 말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

▷ 심대 자녀에게 꼭 표현해야 할 메시지

- ① 너는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이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 했니.
- ②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하는 존재란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 ③ 실망하지 말거라. 길게 보아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거라.
- ④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며 능력을 주신단다.
- ⑤ 사랑한다. 소중하다. 괜찮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잘될 거야. 길게 봐라.
- ⑥ 너의 선택을 믿는다.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다. 정말 잘했어.

선한 능력으로 서는 세대

- 대학부 여름수련회 후기



올해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선한 능력으로 서는 세대’라는 주제로 7월 3일(수)부터 6일(토)까지 충남 태안 신두리 에벤에셀펜션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와 대학부 친구들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복음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수련회를 위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지난 신년예배 때 김운성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회의 시간은 짧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선샘 성도
대학부 학생회장

수련회 첫째 날 강사 이승제 목사님(가까운교회 담임)께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승제 목사님께서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때 예쁜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성경공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셨다는 내용부터 국토종주를 하며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 말씀은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성과 연애, 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던 내용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또 주변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수련회 일정을 짤 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의 너무 많은 일정 때문에 정작 저녁 집회에 집중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아침 시간을 늦게 시작하고, 틈틈이 나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원들끼리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학생회 친구들은 정말 다양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길을 잃은 1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다윗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소외된 친구, 케어가 필요 한 친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각 조의 조장들과 조원들에게도 1마리의 어린 양을 케어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학생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더 집중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대학부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흔들리고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길을 잃을지언정 다윗 같은 친구를 보내셔서 다시 무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였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흔들리는 학생회를 잡아주셨고 세상 속의 지쳐있던 친구들에게 세상 속에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셨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대학부 친구들을 보내셔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고 감사하며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부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십니다. 또 대학부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학부를 찾으러 와주실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만남**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호산나찬양대 일본순회연주를 마치고



박태상 성도
호산나찬양대

호산나찬양대는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본 순회연주를 다녀왔습니다. 요코하마와 오미타마 등지에서 야마토 갈보리교회 등을 방문해 총 다섯 차례 연주회를 통해 느낀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순회연주에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순회연주를 갈 때, 두 가지의 바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성 중창 스테이지를 처음 맡게 되어, 이를 잘 해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조장으로서 호산나에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전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자란 실력과 지식으로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음악적으로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순회연주 준비 기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가사도 외우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순회연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조별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부조장인 저의 무리한 생각으로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되는 거리를 왕복하며 걸어 다

녔습니다. 조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좀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좋은 경험이었다”며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는 날까지 함께 열심히 순회연주를 즐겼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박성은 목사님께서 QT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날씨 얘기도 하셨는데 출국 전 한국에서 일본이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일본에 도착한 날 새벽과 마지막 날 연주 후 밤에만 내리고 그 이외에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날씨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순회연주가 끝나고도 뇌 속에서 아른아른하게 계속 생각났습니다. 홍고다이홀 연주가 끝난 뒤 성도 분들이 “좋았다”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리가 또 고자이마스”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호산나찬양대가 일본 오미타마 사계 문화관 숲의 홀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 호산나찬양대 순회연주는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했다.

셋째 날에는 연주를 하면서 저희 스스로 음악적으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오미타마시 홀에서 합창, 중창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귀에 울려 퍼지는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넷째 날에는 야마토 갈보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일본교회 목사님과 스태프들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을 한국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로 인해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 다시금 저희에게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저희도 큰 목소리로 함께해 찬양 소리가 온 식당을 울렸는데, 홀에서 음악회를 열었을 때보다 수천 배 더 크게 영적으로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려는 자가 함께 찬양하고 비전을 품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연주인 사치가오카 홀에서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발성이나 가사를 신경 쓰지 않고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찬양 가사를 곱씹게 되고 그때 주

제곡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사랑 다 버리고 주 섬기는 마음을 막지 못했을 때 내게 오는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QT를 할 때도 조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을 나누는 과정에서 격려해주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를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조원의 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면저는 나 자신의 기도와 연습이 있었고 또한 지도위원분,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분, 후원해주시는 분,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준비하신 일본 성도 분들

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모두가 준비했을 때 커다란 감동과 은혜, 사랑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영적 기대감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 달 뒤 군대에 가게 되는데,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 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소신

과 생각을 정리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회연주 다녀오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군대 다녀온 후 쓰임 받을, 은혜 받을 저를 기대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을 순회연주에서 강하게 느꼈고, 준비되지 못하고 어리숙했던 과거보다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 글은 필자가 일본순회연주 중에 일본어로 전한 간증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게재한 것이다

김유진 성도
호산나찬양대

호산나찬양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락교회에 다니며 1학년부터 10년 이상 호산나찬양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영락교회로 옮겨와 찬양대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찬양대에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오늘 호산나찬양대의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저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저의 죄를 늦게 알아채더라도 용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조차도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부족한



호산나 김유진 대원이 일본어로 신앙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



장세완 지휘자와 대원들이 청중의 호응에 힘입어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있다.

실력의 일본어지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가르쳐주신 분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17년 첫 순회연주로 일본에 왔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그때, 훌륭한 오케스트라, 멋진 찬양대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빠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단 저희들의 노래를, 멋진 무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문한 모든 교회에서 저희들을 위해, 또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연주를 위해 몇 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주신 일본의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주시고 연주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연주 후에는 눈물을 닦으시며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에 제가 자주 들었던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일본에서까지도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그 은혜가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나라도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연주, 예배, 찬양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새 성전에서 꾸는 꿈



지난 2017년 9월 19일 30여 년 된 옛 성전을 철거하고 1년 8개월 만인 올해 4월 13일 오직 은혜로 반석교회 현당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의실을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며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단칸방에서 한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자듯 좁은 공간에서 100여 명의 군인가족들과 형제들이 함께 어깨를 부딪치며 예배드린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광야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였습니다.

옛 성전이 철거될 당시로 잠시 돌아가자면 저는 그때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전 반석교회 담임이자 장신대 선배인 최찬승 목사님께서 통합 교단 카톡방에 3분짜리 건축 홍보영상을 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반석교회가 불가피하게 철거되게 된 상황과 그려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와 지구촌교회와의 선한 만남을 인도하셔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건축의 큰 기틀을 잡으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인 최 목



박희수 군종목사
700특공연대 반석교회 담임

사님께서 후임인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비도 거의 다 모았고, 설계도 나와 있어서 이제 곧 착공하니까 마무리만 잘하면 될 거야. 희수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다.”

주가 일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희 계획과 달랐습니다. 2018년 6월에 기공예배는 드렸지만, 착공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던 그해 7월, 저는 반석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있었던 건축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정하려 했으나 예상보다 너무 많은 건축비가 나왔기에 설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며 왔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새벽마다 불렀던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주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당을 옮겨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오묘하십니다. 일이 틀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기회를 놓친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틀어지게 하신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힌 것이 더 좋은 길로 가는 기회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일이 틀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새 예배당이 완성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어휴~”하고 한숨 쉬었지만, 이제 돌아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총 7억 원이 넘는 건축비를 모금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후원이 되겠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영락교회와 지구촌교회의 큰 후원 외에 3억 가까운 현금이 연무대교회의 건축에 모였습니다. 반석교회 성도들이 1억 3천을 드리고, 군인교회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남은 금액을 채워주셨습니다.

작년 11월 초 새로운 설계로 건축을 착공하고, 남은 예산을 보면서 군종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건축이 끝나고 마지막 남은 잔금을 지불할 때 딱 채워주실 것 같아.” 정말 마지막쯤 가서야 남은 잔금도 모두 지불하고, 비품도 잘 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막아주시고, 돋는 손길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외부 교회들 형편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반석교회 현당식

속에서 정중한 거절도 경험했고, 때론 무심한 외면도 받으면서 낙심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기대치 않은 도움의 손길 속에서 저를 일으켜주십니다. 저는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저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새 성전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늘 그렇듯이 우리는 그저 믿음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꿀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교회 건축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만을 짓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기대합니다. 꿈을 꿍니다. 아무 것도 없었던 부지를 걸으면서 교회가 올라갈 것을 꿈꿨습니다. 아래저래 공간도 나눠보고, 인테리어 그림도 그려보고 색도 칠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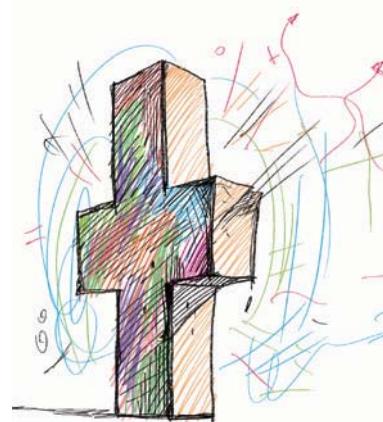
이제 이 성전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그려봅니다.

지금 계신 성도님들도, 군인인 저도 얼마나 이 교회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꿈꿉니다. 이제 저희에게 허락해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이기에 더 힘쓰며,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기도할 것을 꿈꿉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영락교회와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이 아깝지 않도록 반석교회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끝으로 반석교회 전 성도와 700특공연대를 대표하여 영락교회 위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큰 건축헌금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부장 장로님과 제2여전도회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이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꿈꾸며 오랜 시간 늘 앞장서서 섬겨주시는 영락교회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꿈이 있는 곳, 바로 군선교입니다. **만날**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 2019 북한선교대회를 마치고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눅 4:18~19)’라는 주제로 열린 2019 북한선교대회를 순직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길 기대하며 소망한다.

북한선교대회를 앞둔 4월 초, 매년 사역하는 동북아 선교사역지를 다녀왔다. 올해도 기대와 염려를 가지고 갔지만,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기적들로 인해 염려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오히려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북한선교대회 기간은 6월 19일(수)부터 6월 23일(주일)이었지만, 대회 전 3주에 걸쳐 북한동포사랑기도회 수요기도회 1,2부(6월 5일과 12일, 19일), 영락포럼(6월 9일), 송악기도처 방문기도회(6월 15일)가 선교대회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동북아 선교사역 현장을 다녀온 것을 포함하면 약 3개월 이상 금식기도하며 준비한 짧지 않은 일정이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 북한동포사랑기도회에서는 북한선교부 임원, N.K.국제학교 학생, 자유인 청년 등이 모두 6회의 간증과 북한동포사랑기도회 카드를 제작해 함께 기도하는 데에 활용했다.

영락포럼에서는 이춘근 박사(국제정치 아카데미)가 ‘북한 핵 문제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최근 북한 핵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으로 강의했다.

송악기도처 방문 기도회에서는 서부전선 최전방 초소였던 송악기도처에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개성과 북한 땅을 바라보며 복음통일을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준 집사
인천교구
북한선교부 총무



6월 23일 북한선교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송을 드리는 하베로기독회 젊은이들.



베다니광장에 마련된 다양한 북한선교사역 체험 코너

그동안 동북아 선교사역에 헌신해 온 장OO선생님께서 해외선교기도회(6월 18일), 제2남선교회(6월 18일), 영락교회 평생대학(6월 19일), 대학부(6월 23일) 특강과 설교를 맡으셨다. 탈북 여성들과 이들이 낳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전한 현장 소식들은 탈북해 힘겹게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6월 21일(금) 소강당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추상미 감독)’은 1951년 북한이 전쟁 중 폴란드로 보낸 한국전쟁 고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 6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그때 밟았던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폴란드 선생님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보며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다.

특별금요기도회는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설교와, 제1,2 남·여선교회/전도회 회장의 기도 인도로 복음통일기도회와 연합해 복음통일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진행되었다.

북한선교주일예배(6월 23일)에서는 김운성 목사님이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스바냐 2:1~3)’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전 교인이 함께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올려드렸다. 2,3부 예배시간에는 하베로기독회 청년들과 자유인 찬양대의 봉헌 특송이 있었으며, 그 시간에 드려진 북한선교대회 목적헌금은 동북아 선교사역과 자유인사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베다니광장 행사는 북한의 장마당을 연상케 하는 행사로 교육부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구입(작품 전시관람, 기도벽 손도장 찍기, 속도전 띡 시식, 북한교회 재건 스티커 붙이기 등)하게 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코너(캘리그라피, 체험마당, 간식마당, 물품마당)와 기도벽에 있는 북한 사진(신의주, 만포)을 바라보면서 손도장을 찍으며 기도하는 코너로 기획했다. 한쪽 벽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보낸 편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사진, 탈북해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자유인들이 하나원 병원 선생님들에게 쓴 감사의 손 편지 글을 게시했다. 맞은 편 기도벽에는 해방 전 북한에 있었던 북한 교회의 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복음통일의 염원을 적고 있다.



복음통일 기도벽에 새겨진 기도제목과 성도들의 손도장

진을 게시해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스티커를 붙이며 기도 할 수 있게 했다.

북한선교부 사역소개 코너에서는 하나님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생활용품(전자레인지, 전기커피포트, 시계 등)과 북한선교에 사용되는 물품인 성경책, 쪽 복음, 동화책, 성경만화, 인권서적, 성경말씀 풍선(모퉁이돌선교회 제작) 등을 전시했다. 북한음식체험 코너에서는 자유인예배부의 자유인들과 교사들이 정성으로 만든 북한 속도전 떡을 제공했고, 주일 2,3부 예배 후 광장에서는 영락모자원 E.O.Z 밴드의 은혜로운 찬양이 이어졌다. 선교주일 마지막 행사인 저녁찬양예배 시간에는 평생을 북한선교에 헌신하신 임철빈 목사님을 초청해 북한탈북자를 양육하는 사역과 말씀을 들었다.

끝으로, 이번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영락교회의 북한선교사역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락의 성도들께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간절한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을 부탁드린다. 또한, 선교대회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오랜 분단으로 인해 생긴 남북한의 차이는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룬 것처럼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복음통일의 그날을 소망한다. 특별히 이번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북한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한 복음화, 그리고 복음통일의 그날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사역과 헌신을 주님께만 올린다. **만날**

북한선교부 기도사역 안내

예배 및 기도회	장소	시간
자유인예배부 통일예배	선교관	매월 첫째주일 오후 1시
북한동포사랑기도회	본당	매월 첫째주 수요기도회 1, 2부
복음통일기도회	벧엘	매주 금 오후 7-8시

주님이 주신 사랑

- 북한선교 봉사자 간증

북한선교부는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2015년 1월 북한선교부 부장 장로님께서 부회계로 봉사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 후 회계의 역할이 계획된 사역 이후 교회 질서에 따라 재무정리를 감당할 뿐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어진 회계의 직분에 대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북한선교의 사명이 영락교회의 사명이며 미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안에는 자유인예배부, NK국제학교, 안성하나원, 화천하나원 등 총 18팀의 많은 봉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진행되는 북한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면서 제가 만난 3만 3천 자유인들은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2019년 북한선교대회 표어 ‘오직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도 기도로 모두 참여해주셔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재연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북한선교부 회계

저는 북한선교부 회계로 섬기며 토요일, 주일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투정부린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순종하며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등 수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5년 전 북한선교부 부회계로 섬김

을 시작하기 6일 전 서울대병원에서 ‘심실성 빈맥’ 시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목양부에서 5년간 회계로 섬기던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는 교회 봉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오후 2시, 모두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날 병원에서 선생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면서 마치 달리기를 한 직후처럼 숨이 찼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돌아가 심전도 검사를 받고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지시에 곧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밤 10시 도착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심실상 빈맥’이라는 진단이 나와 3일 뒤 1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실 깊은 곳에서 원인이 발생해 2차 시술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듬해 1월 10일에 10시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실상 빈맥’이 아니라, ‘심실성 빈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20명 중

1명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하셨고, 바로 그 한 명이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술이 잘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즉시 북한선교부 부회계 봉사를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나이가 많아, 그리고 힘들어서 교회 봉사 못 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히,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저뿐만 아니라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북녘 땅의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가득 넘치게 경험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생각을 바꾸니 얼굴이 변한다



이연자 권사
충구·용산교구

저는 항상 “네가 먼저 변하길, 네가 바꾸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모습이 변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과의 갈등이 심했었는데, 저희 아들의 입에서 제 목소리의 톤이 변했고, 저의 행동이 변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았는데, 지난번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기도를 하면서 제 모습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과의 관계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아들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제 자신이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얼굴 표정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랑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생각, 그리고 같이 기도할 동역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떠나고 싶었던 교회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고, 몸이 너무 피곤해도 마음의 쉼터가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아파서 10일 동안이나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도대각성 운동 기간을 통해 매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역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번 기도대각성

운동 기간 중 기도하면서 구역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 함께 참석하기로 한 구역식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간 식거리를 하나씩 준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지 매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늘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거래처 사무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도대상자를 주일에 만나 2부 예배로 안내하고, 저는 중보기도실에서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구역식구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한 두 사람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나이가 먹은 지금에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딸이 앞으로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최옥분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 연약해 조상님을 위해 건강히 살 아갈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어린 제가 먼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 그 후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하신 제1계명을 범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요, ‘영원히 너를 지키며 함께할 자는 하나님이시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체험하게 되었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말기 암 환자들을 만나며 혐난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과 여러 고난의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예장하신 뜻 안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자들이 오늘도 있기를 기도하며 찾아 가곤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우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일주일에 2~3번 찾아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88년 제 나이 30대 때, 시어머니께서 대장암 수술을 2번 받으셨고 항암치료도 하셨으나, 치료가 더 이상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시골에 5개월 정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골집에 계셨던 어머니의 통증과 고통은 오늘날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들에게 진통제, 마취제로 견디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에 지옥과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시퍼렇게 토하셨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며 갈라지고 혈떡이 시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옥에 가시면 안 된다는, 이보다 더한 불과 유황에 꺼지지 않는 불 못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마음속으로부터의 울부짖음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곤 했었으나 시아버님의 감시로 전도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계셨을 때 저는 4살, 5살 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와서 아버님의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때, 아버님께 전도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믿으셔야 해요!” 손수 큰 사당을 지으시고 종친회 회장으로 유교에 깊이 몸담고 계셨던 아버님은 벼락 화를 내시며 “너 하나님 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본 사람 있으면 와서 말해보라 해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경험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로 대답할 말씀을 주셨는데, 말하면서도 그동안 들어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말들이 줄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님 못 봤지요. 다른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를 볼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가 엄마를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엄마를 보여줘야 태아가 엄마 있는 것을 믿겠다 한들 뱃속에서 어떻게 엄마를 볼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엄마는 태아가 잘 자라도 돌보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10개월이 다 되면 그 아기는 그 뱃속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뱃속을 떠나 세상으로 나오고 결국 보지도 못해 믿을 수 없다던 엄마 품에 안기며 세상 속으로 와서 살게 되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속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

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죄가 들어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서 네가 이 시아버지를 가르친단 말이냐!” 하시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제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장주문을 열어놓았고, 어머님께 전도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데, 그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세상 떠나기 1주일 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것을 보게 하셨죠.

저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 호스피스 환우들에게 다가가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빨리 죽고 싶다는 분들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게 된다고, 그리고 태아는 뱃속이 다인 줄 알지만 뱃속에서 태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드러나고 엄마 품에 안기듯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합니다. 환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 저의 시부모님을 전도하는 체험을 제게 주셨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대답할 말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저를 지켜주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성실한 믿음과 부지런한 섬김

- 고양·파주교구
54구역장 심두연 집사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연로하신 노(老) 집사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족한 구역장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양 파주교구 54구역장 심두연 집사님을 만났다. 정년을 5년 남겨두신 남자 집사님이었다.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앞세운 폭풍 같은 질문에도 차분히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시는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이미 심집사님의 구역활동이 한눈에 보이는 듯했다.

당뇨로 앞을 볼 수 없는 연로하신 노(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응답받으시는 심 집사님이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노(老) 집사님을 위해 성경을 읽어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인터넷을 통해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 드릴 때에 노(老) 집사님은 한껏 은혜 받으며 얼굴 가득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다. 이 모습에 잠시라도 심방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단다.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귀로는 듣게 하시어 온종일 라디오로 말씀을 듣게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 집사님이었다.



6월 29일(토) 영락기도원에서 있었던 교구 친교의 날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사진 원쪽이 심두연 집사)

심 집사님은 1979년 동대문 감리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영락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이미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부인 정정심 집사와 두 자녀들과 함께 영락교회에 정착해 집사 직분을 받으며 3~4년 전부터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 활동이 녹록치 않을 듯싶지만 심 집사님은 은퇴하신 전 구역장님을 비롯하여 40~50대 남녀 집사님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이 구역에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 월 1회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명의 말씀』 책을 통해 개인 큐티를 하며 은혜받은 말씀과 그날의 주된 말씀을 구역식구들과 매일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누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서 솟구칠 때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역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행한다고 한다.

구역을 돌보다 보면 각양각색의 가정을 보게 된다. 부부의 신앙관과 성격의 다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을 예로 들었다. 심 집사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가족 내의 회복이 우선이란 생각에 머물렀다. 심 집사님은 아내 정 집사님과 합심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시간을 쪼개어 그들 부부와 자주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로 친교를 나누고 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위해 서로 시간을 내어주며 가까이 다가갔다. 심 집사님 부부가 살아가는 편안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까지도 미치는 듯, 이제는 그들 부부의 삶까지도 회복되어가고 있다. 아직 부인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부인을 사랑하시어 조만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는다면 단호한 표정을 보이신다.



심두연 집사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교구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 TV로 보면서 구역예배를 드린다.

잦은 출장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심방준비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구역식구를 위해 구역예배 순서와 성경 말씀, 교구 목사님의 설교, 광고 및 기도제목 등을 파일로 만들어 TV에 연결해 지루하지 않도록 시각적 효과까지 누리며 구역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매달 같은 작업을 하며, 심 집사님의 집을 개방해 온 가족과 구역식구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고 있다.

직장인이며 특히 남자 집사로서 구역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지만 휴가를 내어 심방준비회에 꼭 참석하시며, 주일에는 부부가 함께 사랑부를 섬기는 성실과 부지런함을 모두 갖춘 심 집사님은 저희 남선교 총무로 섬기기도 한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아니면 이리 행할 수 없으리라.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심 집사님은 고백한다. **만남**

취재 이재향 기자

억지 순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 전도폭발훈련의 은혜와 축복



2년 전 이맘때 저는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고향으로만 생각하던 영락으로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이제 내가 다시 영락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실까?” 많은 기도와 질문을 하던 중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공부와 기도, 봉사활동, 이 모든 것을 다 잘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할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이면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전도훈련을 다 받고도 전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저는 1단계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기로 어렵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토요일 오후, 훈련에 임하는 제 모습은 곤고한 심령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성됨이나 탁월함과는 거리가 먼, 그냥 훈련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부득이함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심령을 주님께서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4단계를 마친 지난 학기, 드디어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전도폭발 인도자들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제 심령을 만지셨고, 전도하면서 전문의 내용들이 제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선화 성도
노원교구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25년 남짓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도해온 친정아버지께서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1년 전 쓰러지신 뒤 맷은 열매입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쓰러지시기 1년 전,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생방송에 출연하셨는데 그때도 “선화야, 미안하다”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단계 때 그룹장님을 초청해서 전도했을 때에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쓰러지시고 한 달여 만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시기 하루 전쯤 주님이 제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주님이 가족 구원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주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 그러는 중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졌지만 아버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혼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전문을 통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인생의 모든 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의 이 말씀을 병원 전도와 여러 전도대상자에게 전하면서,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나 자신 또한 머리로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실상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든



전도폭발훈련에 함께 참여했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사진 가운데 아이를 안고 있는 이가 필자)

문제를 내가 떠안고 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과연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나 자신의 믿음 없음과 스스로를 향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호와 이례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제야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알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인생의 질문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억지 순종의 사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병원 전도를 권면받았을 때 저를 ‘외양간으로 끌려가는 소’로 비유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억지 순종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그룹장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탐방하시고 전도할 병원까지 미리 알아두신 그룹장님의 전도자의 삶을 알았기에 그분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근무 후 잠도 안 자고 전도하시는 그분의 노곤한 삶을 알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마땅히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삶의 문제에 지쳐서 이렇게 십 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에 전도하러 나가는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울던 어린 딸이 지금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전철에서 “엄마, 전도 안 해?”라고 권면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식과 이론으로는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전도지와 쓸라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평안하세요” 인사하는 것으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0:12~13)

더러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빌어준 평안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또 복음전문 암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나 ‘꼭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하나’ 아직 마음에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음전문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전도 할 때와는 다르게 변론과 지식적인 논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말씀과도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전도폭발의 전문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또한 감사합니다.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전도훈련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함께 살아가는, 살아 역동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영락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남**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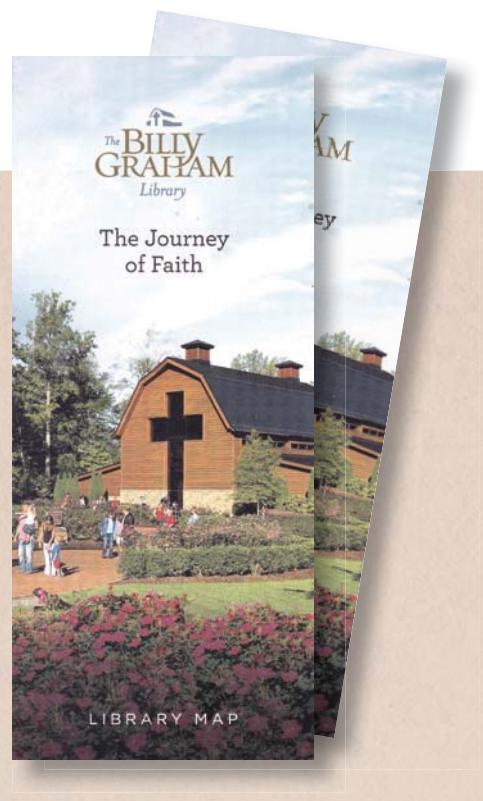
	일정	장소	문의
12기 화요전도훈련팀	9월 3일 (화) ~ 11월 26일 (화) 11주 교육	50주년기념관 402호	전도부 02) 2280-0336
34기 토요전도훈련팀	9월 7일 (토) ~ 12월 7일 (토) 11주 교육	봉사관 지하	

※ 접수 : 8월 18일, 25일 베다니광장

위대한 복음전도자를 기억하며

- 빌리 그레이엄 목사 기념관 방문 후기

이재규 은퇴장로
서초교구, 은퇴장로회 회장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한 지난 5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살럿에 위치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1918~2018) 기념관을 방문했다. 십자가 형태의 입구가 인상적인 기념관 건물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부부 묘소, 좌측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생가가 위치해 있다.

4개의 회랑을 포함해서 14개의 전시실 및 활동실로 구성된 기념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전도자였던 그의 일생을 각 전시공간에서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었다. 기념관에 들어서 처음 둘러본 공간은 ‘소 외양간’이라는 별칭이 붙은 전시실로 어린 시절 목장에서 자란 소년 빌리 그

레이엄이 이른 새벽 소의 젖을 짜던 모습을 비롯해서 그의 나이 16세 때 모르드게 햄 목사의 부흥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신을 결단했던 천막교회 모습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는 여러 전시물 중에서도 세계를 무대로 펼쳤던 복음전도 사역과 관련한 내용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 전시물 중에서는 지난 1973년 한경직 목사님이 대회장을 맡고 17개 교단이 연합한 가운데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주제로 열린 서울 여의도 전도집회가 단연 이목을 끌었다. 그 대회는 100만여 명의 성도가 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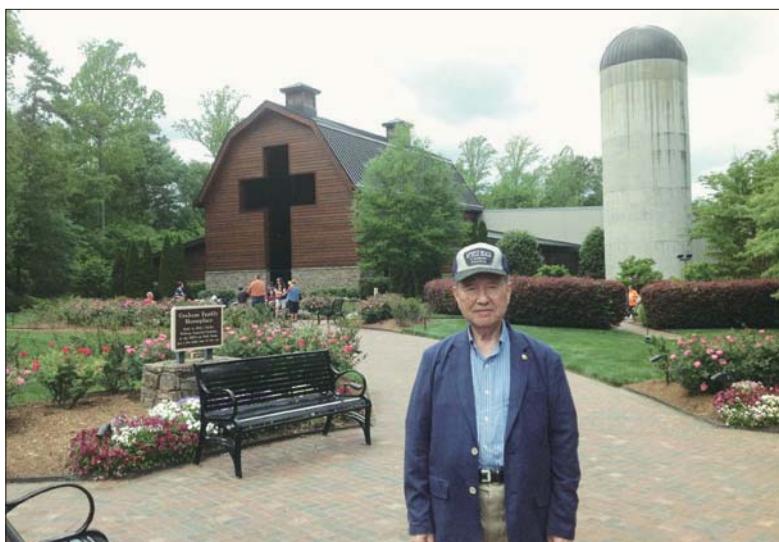
한 가운데 대회 기간 중 4만여 명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1970년대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끈 상징적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된다. 생전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2천 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전도집회로 회고하기도 했던 1973년 여의도 전도집회를 소개하는 대형 전시물을 살펴보면서 당시 여의도에 거주하며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필자로서는 매우 감격스러웠다. 다른 전시실에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의 동시통역을 맡았던 각국 인사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한국어 통역을 도맡았던 김장환 목사님도 크게 소개되어 있다. 또 별실에는 1992년 4월 북한을 방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모습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기념관 내 회랑을 돌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사모였던 루스 그레이엄(1920~2007) 인터뷰 영상이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일 년 열두 달의 대부분을 세계 각국의 전도대회 개최로 집을 비우자 5남매의 자녀를 혼자

키웠던 루스 사모에게 한 신문기자가 “남편하고 이혼해 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혼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들었다”라는 루스 사모의 익살맞은 대답에 관람객들 모두 가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빌리 그레이엄 기념관은 평생을 복음전도에 헌신했던 그의 정신을 살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방문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관람이 끝나면 결신 카드를 기록한 후 자원봉사자들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현재는 장남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레이엄 복음주의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 세계 약 500명의 스태프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부를 두고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기념관 관람을 마치고 그들 부부의 묘소를 방문했다. 허리 높이의 돌 각담 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내외 묘소가 평장 형태로 가지런히 자리해 있었다. ‘주님의 복음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 기념관을 방문한 필자.
십자가 형태의 기념관 입구가 인상적이다.

자’란 문구와 ‘요한복음 16:4’라고 새겨진 목사님의 묘비를 보다가 왼편에 누운 루스 사모의 묘비에 눈길이 갔다. 묘비 상단에는 한자로 ‘옳을 의(義)’자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우리말로 해석하면 “공사 끝. 참아주어 감사합니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눈길을 끌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느 날 이들 부부가 도로공사 구간을 운전하며 지나가는데 사모가 공사 안내판을 발견하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안내판에 쓰인 문자 그대로 자신의 묘비 비문을 삼기로 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내 인생이 평생 하늘나라를 향한 공사 중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을까”를 의미한다는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또한 ‘옳을 의(義)’자를 새긴 것은 일제 시기 중국과 이북에서 20여 년 이상 의료선교를 펼쳤던 아버지 넬슨 벨 선교사의 묘비에 ‘義’자를 새긴 것을 따라 한 것이라고 한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부터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기도 동역자이자 개인 고문으로 봉사해왔으며 평생 동안 185개국에서 수많은 이들을 위해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수백만 건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그를 두고 어떤 이들은 그를 ‘미국의 목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생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평생 세 번의 큰 유혹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세 번의 유혹이란 명문대학의 총장, 연방 상원의원, 부통령직 등을 제안받았으나 그러한 명예는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거절했기에 위대한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2007년 사모 루스 그레이엄이 87세로 사망한 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차츰 건강상태가 나빠졌으며 파킨슨병



지난 1973년 6월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부부. 한경직 목사가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을 앓기도 했다. 93세였던 2011년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서 그는 ‘끔찍한 노년’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육체적 노쇠함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겨낼 뿐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젊어서부터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잠자고 일어나 식사하고 소일한 후 다시 잠을 자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늙어서도 놀라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라고 삶과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기념관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이 기념관 곳곳의 전시물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먼 곳을 찾아가는 고된 여정이었으나 그 고단함마저도 씻어버린 매우 소중한 방문이었다. **만남**

짐과 쉼 그리고 영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여름의 초입에 들어서는 6월의 어느 토요일.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는 제2남선 교회 강동·송파지회에서 주관하는 영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즈넉한 분위기 가운데 수련원에 들어서는 순간 힐링(치유)이 시작되었습니다. 권혁일 목사님의 말씀과 특강을 통해 은혜 듬뿍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 처음 영락수련원에 오셨다는 집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을까요? 7쌍의 부부를 포함한 10여 가족 15명이 참여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윤호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일터를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쉼 없이 일만 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쉬려면 먼저 짐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날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도 하지만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쉼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권 목사님은 “먼저 우리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등을 통해 바쁜 여가, 성스러운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려움과 피곤함을 만날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잘 살핀 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우리는 주님께 ‘이 짐을 벗겨 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짐을 내려놓는 묵상을 하자”고 권면하셨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사의 구절 하나하나가 더욱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의 특강 후에 다 함께 수련원 경내의 예수님 생애 묵상동산을 거닐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삶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

행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쉼을 얻거나 각자 사정에 맞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 쉼을 누립니다. 피로로 인한 번아웃 (burnout) 증후군(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영성수련을 통해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차원이 다른 쉼과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폭염이 찾아오는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적절한 쉼과 영성회복을 통해 영과 육이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영성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며 말씀 묵상과 경건한 기도생활을 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어머니의 기도

주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길 원치 않아요.
다만, 그 돌이 발판이 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넓고 편편한 그런 길
그것보다는! 더 힘하여도
주님의 손 붙잡고
 찬송 드리며
감사하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과 투병하는 큰 아들을 마음에 안고

심경화 은퇴권사
서대문·은평교구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

- 존 비비어의 「존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2:30하)

책의 저술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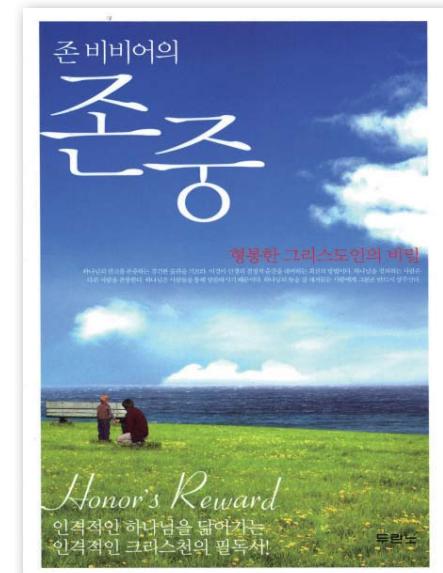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영혼의 원수는 존중의 힘을 없애버리다시피 한다. 존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다.

⇒ 존중을 배우고 또 적용하려면 먼저 경건한 습관을 길러야하는데, 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중의 본질과 출발점인 까닭이다.

존중의 정의와 원리

존중은 그리스어로 티미(time)이다.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진가를 인정하며 중시하고 품위로 대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존경한다는 뜻이다. 반대어는 아티미아(atimia)다. 경멸, 훈하고 천하게 취급, 무시, 수치나 모욕 등을 의미한다.

존중은 행동, 말, 생각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된 존중이 마음에서 비롯되듯 경멸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존중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 존 비비어 저, 윤종석 역(두란노, 2009)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3)라는 말씀과 같다.

⇒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한다(사 11:3).

존중의 속성

모든 영역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임하신 것이다. 그 권위를 존중하면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주신다. 이것이 곧

경건이다. 이것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영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머무는 자리가 마음이고, 경외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존중이다. 존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속에 짜 넣으신 영적원리다.

권위에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권위를 존중하는 명령에 충실히 해야 한다.

존중의 원리를 적용

까다로운 권위도 존중한다. 이는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 영적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우리 안에 성품이 건고히 서면, 존중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상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며 까다롭게 굴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주도적인 행동이지 사람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이때 선으로 악을 맞서게 된다(롬 12:21).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총까지 얻는 기회가 된다.

위선적 존중은 존중이 아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심지어 멸시하는 사람의 특성이 위선인데, 그들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중상한다. 이럴 때 입과 행동으로는 존중을 보이지만 그 속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위선, 가식, 기만 없는 참사랑으로 참된 존중을 해야 한다. 서로 논쟁이나 주장

을 피하고 권위에 사랑과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말과 행동, 표현방법, 감정 등으로 존중의 품격이 표현된다. 즉, 누구나 말을 할 때는 스스로 인격과 품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존중은 종과 같지 않고 섬기는자의 신분과 역할로 변화되게 한다.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진하여 기회를 찾고 주인의 필요를 알고 찾아서 한다.

불의한 권위에도 존중한다. 불의한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불의한 권위가 죄를 짓게 할 때 죄는 단호히 거부하되 권위는 존중한다.

⇒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지 모든 권세가 경건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존중에서 비롯된 경건한 습관(하나님 경외)

평소 경건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에는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평소 지혜롭게 분별,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두어야 한다. 선택의 순간에는 먼저 영적분별력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어 있는 습관화가 필요하다.

⇒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 삶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마 7:20).

존중의 리더십

지도자가 작은 자를 존중하면 작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활성화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그 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때 그 분의 지시를 그저 법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 지시의 밑바탕에 깔린 지혜를 볼 수 있다.

- 존 비비어「존중」에서

경건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머리로는 논리가 이해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한다(사 11:3).

다윗은 불의한 권위에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했다. 사울의 불의한 권위에 다윗은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충실했고, 사울이 심판받고 죽은 후에도 권위를 존중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의를 즉시 처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을 시험하여 경건한 왕으로 세우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을 깊이 되새겨본다.

글을 마치며

⇒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영락교회의 '기도대각성운동'은 존중의 회복이다.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이유다.

교회의 리더십 존중

-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정중하게 진정성을 가진 말과 행동으로 존중한다.
-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심겨야 한다(시 92:13). 당신이 교회에 심겨 있다면 교회 지도

자들을 중시할 것이다. 그들의 부탁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 지도자가 사역을 벗어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주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복음전도의 디딤돌이 되지만, 존중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교회 존중하기

-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 일하기 위해서다.
- 부르심과 받은 달란트로 존중의 원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하신다.
-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 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 25:26)” **만남**



심재수 장로
중구·용산교구

도마, 예수의 상처가 아니라 예수를 보게 된 사람



공관복음서에서 도마는 열두 제자의 명단에만 보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부활 이후 다음 세 경우에 등장한다. 한 번은 예수께서 도마가 없는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신 뒤에,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지막으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이다.

열두 제자 중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도마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막 16:13).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반응을 자세히 서술한다.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그가 “영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했다”(눅 24:37). 몸으로 부활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 것이다(눅 24:38). 마태복음을 보면, 심지어 예수의 승천 직전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눅 28:17).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제자들 중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의 의심의 내용과 그가 의심을 극복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한다. 이 때문에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들의 대표 격이 되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전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바로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듣기만 하고서 믿을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도마만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의 대표자가 된 것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

한 마디로 그는 자신의 강한 의심을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바로 그 증거를 몸에 지니신 때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의 상처에서 눈길을 돌려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요 20:28)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심상치 않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요 20:29). 이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상처를 직접 보지 않은 채 믿을, 그 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었다. **만남**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우리 눈 여소서’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우리 눈 여소서’를 주제로 지난 6월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오전 6시(29일은 6시30분) 본당에서 열렸다.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기도로 준비하고자 열린 이번 기도회는 김운성 목사가 첫날 ‘주의 영광을 보매(고후 3:12~18)’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라(신 34:9~12)’,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 13:14~18)’, ‘바다 쪽을 바라보라(왕상 18:41~46)’,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왕하 6:8~23)’의 순으로 6일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

김운성 목사는 기도회 기간 중 설교를 통해 “하반기를 잘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믿음의 눈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역설하면서 “상반기 진행된 기도대각성 운동의 열정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락 공동체, 믿음의 평화를 누리는 영락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IT미디어부

아름다운 초대의 자리, 새가족부 상반기 새가족 초청 잔치

새가족부(부장 박성만 장로)는 7월 6일(토) 오후 3시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새가족 초청 잔치’ 행사를 가졌다. 금년 상반기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영락교회 등록 교인이 된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복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



는 새가족 및 동반 가족 154명과 새가족부 양육위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한 새가족들과 양육위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찬양의 시간으로 시작된 새가족 초청 잔치는 참석자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문화선교부의 ‘아름다운 초대’ 뮤지컬 공연과 선물증정 퀴즈, 저녁 만찬 등을 통해 새가족들이 영락교회 가족공동체가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신앙의 정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제공 새가족부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교사부흥회 열려



교육부(부장 이영철 장로)는 지난 6월 16일(주일) 오후 3시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한 교사부흥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주일마다 개최된 ‘모든 교사를 위한 다음세대 기도회’의 4번째 시간으로 열린 이번 교사부흥회에서는 영훈고 교목 최관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강사를 맡은 최관하 목사는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시 126: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자”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며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사가 되자”고 역설했다. 이어 백성우 교육전담목사의 인도로 모든 참석자가 2019년 여름사역을 위한 13개 교육부서의 부서별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다음세대 기도회’는 7,8월은 쉬며 하반기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사회봉사부 ‘이웃섬김 봉사자교육’ 실시

사회봉사부(부장 나선환 장로)는 지난 6월 21일(금)과 28일(금) 두 차례에 걸쳐 선교관에서 ‘이웃섬김 봉사자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봉사부 산하 가정복지팀 주관으로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정경환 목사(나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치매인 이해와 마음 다해 돌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정 목사는 강의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



가 늘어감에 따라 함께 고민해야 할 ‘치매인’에 대한 현실적 이해, ‘치매인’을 위한 돌봄의 방법, ‘치매인’과 봉사자의 영적교감 및 기도의 동역자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성도들이 협력해 함께하는 봉사자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본 교육은 총 2회 교육 수료 후, 수료생 중에서 ‘이웃섬김 봉사자’로 섬기기를 결단한 희망자는 사회봉사부 가정복지팀 봉사자로 등록된다. 등록 후에는 각 교구의 독거노인, 심신미약자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방문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봉사를 펼치게 된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평생대학 1학기 종강, 2학기 개강은 9월 4일



친교부 산하 평생대학이 지난 6월 26일(수) 본당에서 종강식을 갖고 2019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평생대학에 재학 중인 1,000여 명의 어르신들과 60여 명의 평생대학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종강식에서 김정희 목사가 ‘주의 말씀을 붙드소서(시 19:116)’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한 교사들이 ‘그의 빛 안에 살면’이라는 특별찬양(사진)으로 어르신들에

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평생대학의 어르신들은 두 달여에 걸친 방학 동안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필사하고 요한1서 2장 전체의 말씀을 암송하는 숙제를 통해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에도 말씀 보기를 거르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다짐했다. 평생대학 2학기 개강은 9월 4일(수)이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서무부·IT미디어부 주관, 제직부서 불용 컴퓨터 수거

서무부(부장 신은정 장로)와 IT미디어부(부장 김지언 장로)는 지난 5월 26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교회 내 제직부서에서 잡자고 있는 컴퓨터 및 노트북, 모니터 등 컴퓨터 관련 장비 총 33개를 수거해 16개를 수리 후 재활용하고 17개를 폐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무부와 IT미디어부는 앞으로도 각 부서의 불용 컴퓨터 수거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예산절감 및 재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자원 재활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공 서무부

대화섬유,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의류 1,130점 후원

중견 섬유업체 대화섬유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호전 은퇴 안수집사(고양·파주교구)가 지난 6월 26일(수)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의류 1,130점을 후원했다. 평소 물품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오던 박호전 집사는 최근 영락사회복지재단에 후원 의사를 밝히고 이번 의류 후원을 위해 천여 장이 넘는 여름 티셔츠를 일일이 포장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박 집사가 후원한 천여 장의 의류들은 재단 산하 10개의 복지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여름 선물이 되었다. 필요 수량보다 여유 있게 후원한 덕분에 일부는 본 교회 행정처 직원들에게도 배포되어 격려의 선물이 되기도 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6월 2일~7월 7일)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6월 2일	김성은	90	888	6월 23일	김은예	04	027
	지소담	90	888		박지혜	10	000
	김의겸	90	888		김진원	17	008
6월 9일	방주	90	888		정예찬	90	888
	이고윤	90	888		허윤재	15	011
6월 15일	조은우	04	098		박채이	02	019
6월 16일	김옥희	13	046		윤샤론	02	019
	정양숙	10	000		이광진	03	000
	이명숙	07	032		서종성	10	000
	조소연	13	000		정철주	02	000
	서장욱	07	004		신말순	05	009
	이리팡	07	004		오종호	08	025
	이진구	03	030		남인술	02	000
	김민수	90	888		이준철	08	000
	한소민	90	888		박영순	06	000
	윤자경	16	000		선우태열	03	000
	심윤정	03	019		김진수	05	001
	계서연	01	045		이성희	05	001
	박점희	18	037	6월 30일	김계훈	03	038
6월 23일	조성희	10	000		권기철	10	000
	최귀진	18	044		정송이	90	888
	방영환	10	000		정나실	90	888
	정은이	12	015		이예진	90	888
	한지현	12	027		이다영	15	011
	이대철	10	000		박지아	10	003
	장두열	04	063		박윤아	10	003
	정유진	11	052		이도영	10	003

세례·입교를 축하합니다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기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7월 3일	변하준	16	050	7월 7일	이준용	18	000
7월 7일	선문학	16	000		남윤희	06	000
	김왕중	05	000		이승원	17	000
	김태형	12	000		이성원	17	000
	서윤정	10	000		김하영	11	000
	전민기	18	000		김자원	01	023

세례·입교 세례·입교일(7월 7일)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이호준	18	020	세례	고종순	10	055
	심유빈	13	030		정남훈	11	046
	박하람	80	888		이윤주	11	046
세례	장신건	03	017		김석규	16	055
	이순자	13	023		최근철	08	073
	남건우	11	052		최림	09	049
	유승원	08	058		박금숙	04	014
	임연주	11	016		성승제	05	007
	구관희	04	014		김용현	03	048
	서하경	12	045		고현숙	11	006
	이영옥	13	036		이명현	13	033
	김영태	17	008		이송주	07	052
	백효순	01	041		이승근	06	054
	정난영	18	016		송이새	80	888
	김정숙	06	021		정진영	80	888

편집장 레터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다. 절박한 뺑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명예와 이성(異性)과 황금, 법규위반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혹들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온다. 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코자하는 충동은 우리를 깊은 함정에 휩쓸어 넣는다. 인류의 시조인 이브(Eve)조차도 눈이 밝아 지리라는 뺑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읍은 우리의 삶을 유혹의 싸움이라고 했다. 한번의 유혹이 끝나면 또 다른 유혹이 닥쳐온다.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밝혔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城)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동해안의 바위처럼 술한 세월을 밀려오는 파도에도 물러서지 않고 견디듯이, 우리는 쉼 없이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유혹은 용맹이나 지략으로 물리쳐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겸손으로써 속사람이 튼튼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유

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야말로 강자이며, 용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분의 대적인 악마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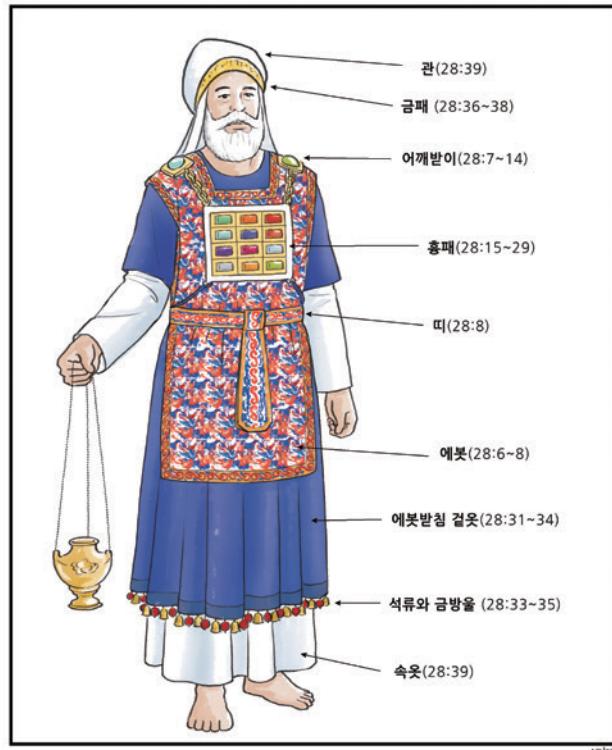
기도하며 스스로의 처신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싱그럽고 찬란한 이 계절,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편집장 이동훈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7월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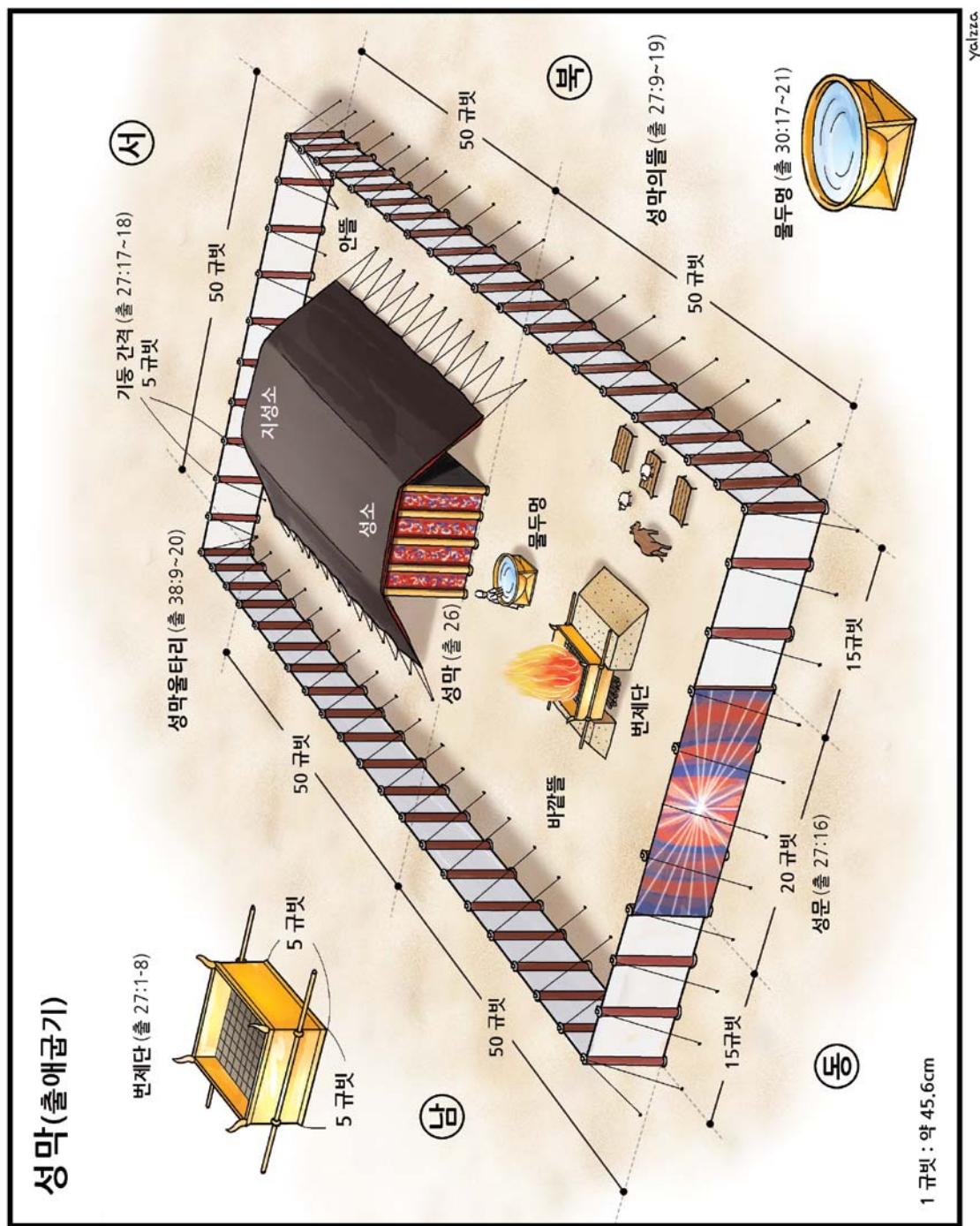


※ 출애굽기 28장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성막2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 거룩한 성막의 모습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회력

8月

4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7일(수)~9일(금)	산상기도회 2차
8일(목)~10일(토)	한마음한가족 가족수련회
11일(주일)	광복주일, 제직회
13일(화)~17일(토)	청년부 하기선교봉사(충남 보령, 홍성, 예산)
18일(주일)~23일(금)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25일(주일)	심방준비회, 새가족환영회, 사회봉사주일

영락 3040 젊은 세대 모임 안내

자치단체	대 상	모임시간	장 소
3남선교회	만 43세~만 52세 남자 성도	매주일 11:00~12:30	봉사관 304호
3여전도회	만 43세~만 52세 여자 성도	매월 첫째주일 지난 금요일 12:00(중앙월례회)	교육관 4층
		매월 셋째주일 지난 금요일 12:00(실행위)	봉사관 504호
4남선교회	만 43세 이하 남자 성도 (부부 및 자녀동참 환영)	매주일 14:50~16:20	영락유치원(유아부 예배실)
4여전도회	만 42세 이하 여자 성도	매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10:30(중앙월례회)	봉사관 405호
		매월 셋째 주일 11:10 (직장인 미혼대상)	제2식당
부부선교회	신혼, 영·유아자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성도	매주일 15:00~17:00	50주년 201호(유치부실)
청년선교회	35세 이상 미혼 형제·자매	매주일 15:10~16:30	영락어린이집(영아부 예배실)
3040 성경공부반	30, 40대 성도	매주일 11:30~12:30	봉사관 504호



제59회 산상기도회

1차 7월 31일(수) ~ 8월 2일(금)

강사 : 허원구 목사(부산장신대 총장)
참여교구 : 2(강동·송파) 3(성동·광진) 7(서대문·은평) 9(마포·영등포)
10(종로·성북) 11(노원) 14(인천) 15(성남·분당) 16(고양·파주)

2차 8월 7일(수) ~ 8월 9일(금)

강사 :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참여교구 : 1(강남) 4(중구·용산) 5(관악·동작·금천) 6(강서·구로·양천)
8(동대문·중랑) 12(강북·도봉) 13(서초) 17(안양·수원)
18(용인·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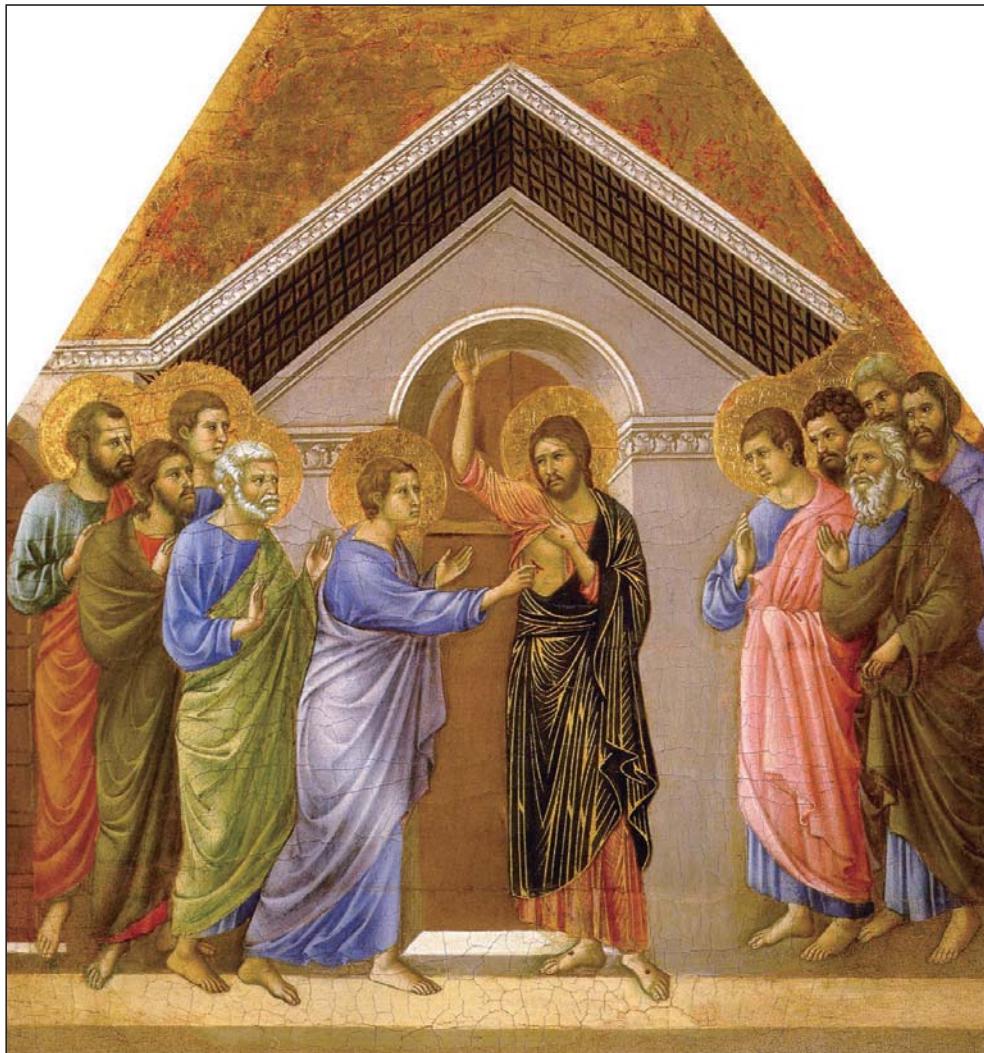
장소 : 영락기도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55길 168-6)

■ 산상기도회 시간대별 셔틀버스 운행 시간

	운행시간	해당일자	탑승장소	비고
새벽기도	05:30~06:00	8월 1일~2일 8월 8일~9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출구 120m 전방 한국마사회 (렛츠런-영문간판 LetsRun)	수시 운행
오전예배 전	08:00~10:00			
오후	12:00~19:00			
저녁예배 후	22:00~	7월 31일, 8월 1일~2일 8월 7일~9일	기도원 - 각 버스 2회 운행 (상황에 따라 기도원차량 1회 추가운행 가능)	

* 기도원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락화랑 | 예수의 12제자⑦



두치오(Duccio di Buoninsegna), 템페라화, 58×52.7cm, 1308~1311

의심하는 성 도마

Incredulity of Saint Thomas

두치오(1255/60~1315/18)는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사람이다.

두치오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림은 나무판 위의 템페라화 아니면 벽 위의 프레스코화였는데, 그는 템페라화의 대가였다. 이 작품은 두치오의 대표작 마에스타(Maestà)의 한 부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는 도마를 묘사하고 있다. 도마의 손은 옆구리 상처에 닿아 있지만 그의 눈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의 얼굴을 향해 있다. 다른 제자들의 눈 역시 더 이상 예수의 상처를 보고 있지 않다.